

고1
공통국어1
지학사

2026 고1 공통국어1 지학사 | 1(2) 봄·봄 기출 서술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상 출제 유형

「봄·봄」은 데릴사위로 들어왔지만 머슴처럼 일하는 ‘나’가 겪는 장인과의 갈등을 해학적으로 그리고 있는 농촌 배경의 소설입니다. 따라서 이 소설에서 해학성이 드러나는 요인을 묻는 문제와 소설의 내용을 묻는 문제,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또한 서사 갈래의 주요 특징인 인물 간의 갈등과 이야기의 구성 등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서사 갈래의 특징을 묻는 문제와 작가의 문체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도 출제되니 내용을 잘 정리하고 서술상의 특징은 서술자의 특징을 중심으로 파악해 봅시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장인님! 인젠 저……”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긁고, 나이가 찼으니 성례를 시켜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 그 대답이 늘 “이 자식아! 성례구 뭐구 미쳐 자라야지!” 하고 만다.
이 자라야 한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장차 내 안해가 될 점순이의 키 말이다.
내가 여기에 와서 돈 한 푼 안 받고 일하기를 삼 년 하고 꼬박이 일곱 달 동안을 했다. 그런데도 미쳐 못 자랐단니까 이 키는 언제야 자라는 겐지 짜증 영문 모른다. 일을 좀 더 잘해야 한다든지, 혹은 밥을(많이 먹는다고 노상 걱정이니까) 좀 덜 먹어야 한다든지 하면 나도 얼마든지 할 말이 많다. 허지만, 점순이가 안죽 어리니까 더 자라야 한다는 여기에는 어찌 볼 수 없이 고만 병병하고 만다.
이래서 나는 애초 계약이 잘못된 걸 알았다. (중략) 때가 되면 장인님이 어린하랴 싶어서 군소리 없이 꾸벅꾸벅 일만 해 왔다. 그럼 말이다, 장인님이 제가 다 알아채려서, ㉠“어 참, 너 일 많이 했다. 고만 장가들여라.” 하고 살림도 내주고 해야 나도 좋을 것이 아니냐. 시치미를 딱 떼고 도리어 그런 소리가 나올까 봐서 지레 펄펄 뛰고 이 야단이다. 명색이 좋

아 데릴사위지 일하기에 승겁기도 할뿐더러 이건 참 아무것도 아니다.

㉡숙맥이 그걸 모르고 점순이의 키 자라기만 까맣게 기달리지 않았나.

언젠가는 하도 갑갑해서 차를 가지고 덤벼들어서 그 키를 한 번 재 볼까 했다마는, 우리는 장인님이 내외를 해야 한다고 해서 마주 서 이야기도 한마디 하는 법 없다. 읍몰길에서 어찌다 마주칠 적이면 겨우 눈어림으로 재 보고 하는 것인데, 그럴 적마다 나는 저만침 가서

㉢“제-미, 키두!”

하고 눈독에다 침을 뱉 뺏는다. 아무리 잘 봐야 내 겨드랑(다른 사람보다 좀 크긴 하지만) 밑에서 녀를 락 말락 밤낮 요 모양이다. ㉣개, 돼지는 폭폭 크는데 왜 이리도 사람은 안 크는지, 한동안 머리가 아프도록 궁리도 해 보았다. 아하, 물동이를 자꾸 이니까 뺨다귀가 움츠라드나 부다 하고, 내가 년쫓년쫓시 그 물을 대신 길어도 주었다. 뿐만 아니라, 나무를 하러 가면 소낭당에 돌을 올려놓고 “점순이의 키 좀 크게 해 줍소사. 그러면 담엔 떡 갖다 놓고 고사 드립죠니까.” 하고 치성도 한두 번 드린 것이 아니다. 어떻게 돼먹은 킨지 이래도 막무관해니…….

㉤그래 내 어저께 싸운 것이지 결코 장인님이 밑다든가 해서가 아니다.

모를 붓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또 승겁다. 이 버가 자라서 점순이가 먹고 좀 큰다면 모르지만, 그렇지도 못할 걸 내 심어서 뭘 하는 거냐. ㉥해마다 앞으로 축 거불지는 장인님의 아랫배(가 너머 먹은 걸 모르고 내병이라나, 그 배)를 불리기 위하여 심은 곤 조금도 싶지 않다.

“아이구, 배야!”

난 몰 붓다 말고 배를 씨다듬으면서 그대루 눈독으로 기어올랐다.

1.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작품 밖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까지 자세히 서술한다.

- ② 작품 속 인물이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한 심리를 서술한다.
- ③ 사건에 대한 인물들의 심리가 자세히 드러난다.
- ④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장면으로 긴박함이 느껴진다.
- ⑤ 사건 진행의 흐름이 과거에서 현재로 순차적으로 흐르는 순행적 구성이 나타난다.

2.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나’는 점순이의 키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점순이의 일을 대신 해주기도 하고 치성을 드리기도 했다.
- ② ‘나’는 장인에게 점순이와 성례를 시켜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 위해 꾀병을 부렸다.
- ③ ‘나’는 장인과의 계약이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다.
- ④ 나는 장인의 말대로 점순이의 키가 자라지 않아 성례를 못 한다고 생각한다.
- ⑤ ‘나’는 장인에게 불만이 있지만 점순이와 성례를 시켜달라고 대놓고 말하지는 못했다.

3. ㉔에서 드러나는 ‘나’의 심리로 적절한 것은?

- ① 점순이의 키를 핑계로 성례를 시켜 주지 않는 장인에 대한 원망
- ② 점순이가 키가 크려는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 같아 화가 남
- ③ 점순이가 키가 크지 않아 성례를 못 하는 현실에 대한 울분
- ④ 결혼의 조건이 키인 것에 대한 어이없음
- ⑤ 점순이의 키가 얼른 크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아서 속상함

4. ㉑~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장인은 ‘나’를 계속 부려 먹기 위해 점순이와의 혼인을 일부러 미루고 있다.
- ② ㉒: ‘나’는 성례를 하기 위해 장인을 믿고 점순이의 키가 크기만을 기다리던 자신의 선택이 옳았

다고 생각한다.

- ③ ㉓: 점순이를 동물과 비교하여 키가 크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해학적으로 표현했다.
- ④ ㉔: ‘나’는 장인이 자신과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일만 시키고 있지만 평소 장인에 대한 불만이 없다.
- ⑤ ㉔: 장인의 외양 묘사를 통해 ‘나’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 병에 걸렸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 자식아, 일허다 말면 누굴 망해 놀 셈속이냐? 이 대가릴 까놀 자식.”

[A]

우리 장인님은 약이 오르면 이렇게 손버릇이 아주 못됐다. 또, 사위에게 이 자식 저 자식 하는 이놈의 장인님은 어디 있느냐. 오작해야 우리 동리에서 누굴 물론하고 그에게 옥을 안 먹는 사람은 명이 짜르다 한다. 조고만 아이들까지도 그를 돌려 세 놓고 ‘옥필이(번 이름이 봉필이니까), 옥필이’ 하고 손가락질을 할 만치 두루 인심을 잃었다. 허나, 인심을 정말 잃었다면 옥보다 읍의 배 참봉 댁 마름으로 더 잃었다. 번이 마름이란 옥 잘하고, 사람 잘 치고, 그리고 생김 생기길 호박개 같애야 쓰는 거지만, 장인님은 외양이 똑 됐다. 작인이 닭 마리나 좀 보내지 않는다든가 애벌논 때 품을 좀 안 준다든가 하면 그해 가을에는 영락 없이 땅이 똑똑 떨어진다. 그러면 미리부터 돈도 먹이고 술도 먹이고 안달재신으로 돌아치든 놈이 그 땅을 슬쩍 돌려안는다. 이 바람에 장인님 집 빈 외양간에는 눈깔 커다란 황소한 놈이 절로 엉금엉금 기어들고, 동리 사람은 그 옥을 다 먹어 가면서도 그래도 굶실굶실 하는 게 아닌가…….

그러나 내겐 장인님이 감히 큰소리할 계제가 못 된다.

뒷생각은 못 하고 뺨 한 개를 딱 때려 놓고는 장인님은 무색해서 덩덤이 쓴침만 삼킨다. 난 그 속을 펴 잘 안다. 조금 있으면 갈도 꺾어야 하고, 모도 내야 하고, 한창 바쁜 때인데 나 일 안 하고 우리 집으로 그냥 가면 고만이니까. 작년 이맘때도 트집을 좀 하

니가 늦잠 잔다구 돌맹이를 집어 던져서 자는 놈의 발목을 빼게 해 놨다. 사날씩이나 건승 ‘공, 공.’ 앓았드니 종당에는 거반 울상이 되지 않았는가……. (중략)

논독에서 벌떡 일어나 한풀 죽은 장인님 앞으로 다가스며,

㉠ “난 갈 테야유. 그동안 사경 쳐 내슈, 뭐.”

“너, 사위로 왔지 어디 머슴 살러 왔니?”

“그러면 얼쩡 성렐 해 줘야 안 하지유. 밤낮 부러만 먹구 해 준다, 해 준다…….”

“글쎄, 내가 안 하는 거냐, 그년이 안 크니까…….”

하고 어름어름 담배만 담으면서 늘 하는 소리를 또 늘어놓는다.

이렇게 따져 나가면 언제든지 늘 나만 밀치고 만다. 이번엔 안 된다 하고 대뜸 구장님한테로 단판 가자고 소맷자락을 내끌었다.

“아, 이 자식이 왜 이래, 어른을.”

안 간다구 뺨디디고 이렇게 호령은 제 맘대로 하지만 장인님 제가 내 기운은 못 당한다. 막 부러 먹고 딸은 안 주고, 게다가 땅땅 치는 건 다 뭐야…….

그러나 내 사실 참, 장인님이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니다.

[B] 그 전날, 왜 내가 새고개 맞은 봉우리 화전발을 혼자 갈고 있지 않았느냐. 밭 가생이로 돌적마다 야릇한 꽃 내가 물컹물컹 코를 찌르고 머리 우에서 벌들은 가끔 ‘붕, 붕.’ 소리를 친다. 바위틈에서 샘물 소리밖에 안 들리는 산골짜기니까 맑은 하늘의 봄별은 이불 속같이 따스하고 꼭 꿈꾸는 것 같다. 나는 몸이 나른하고 몸살(을 아주 모르지만 병)이 날라구 그러는지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이랬다.

5. [A]에 나타난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장인의 성격과 인물의 특징을 서술자가 직접 제시하고 있다.
- ② 장인이 다른 사람들에게와는 달리 나에게는 특별히 부드럽고 인정 있게 대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나’가 장인을 부르는 호칭을 통해 평소에 장인을 존경해 왔음이 드러난다.
- ④ 장인이 마름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평소 마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가 보여주는 방식으로 드러난다.

- ⑤ 장인의 평소 언행이 원인이 되어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임을 암시한다.

6. [B]에 나타난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날씨가 좋으니 일을 하기가 싫어진다.
- ②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져 몸이 안 좋아진 것 같다.
- ③ 봄이 되니 마음이 들뜨고 괜히 설레는 감정이 든다.
- ④ 봄이 되어 꽃이 피니 놀러 가고 싶다.
- ⑤ 봄 농사를 짓느라 몸이 고되고 피곤하여 눕고만 싶다.

7. ‘장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네 어린아이들까지 장인을 별명으로 부르는 걸로 보아 아이들에게도 인심을 잃었다.
- ② 그래도 사위인데 ‘나’를 부러 먹을 대로 부러 먹으면서 때리기까지 하는 걸 보면 못된 성격이다.
- ③ 당시 장인처럼 마을 사람들을 때리기도 하고 못살게 구는 마름은 거의 없었다.
- ④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고 대놓고 뇌물을 받기도 하는 걸 보면 마름으로서 비리를 많이 저지르고 다녔다.
- ⑤ 동네 사람들에게 욕을 안 한 경우가 없을 정도로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나쁜 행동을 일삼았다.

8. ㉠에 드러나는 ‘나’의 심리로 적절한 것은?

- ① 그동안 일한 사경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면 장인이 점순이와 성례를 시켜 줄 것이다.
- ② 그동안 일한 값을 올려 받기 위해 일부러 센 척하고 있다.
- ③ 그동안 일한 값을 받고 다른 살길을 찾아보려 하고 있다.
- ④ 장인이 성례를 시켜 주지 않으니 이제 그만 성례를 포기하려 한다.

- ⑤ 자신이 데릴사위라는 이름의 머슴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달아나려 하고 있다.

【9~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꺾소리 없이 왔다.
 장인님과 내가 싸운 것은 지금 생각하면 전혀 뜻밖의 일이라 안 할 수 없다. 장인님으로 말하면 요즈막 작인들에게 행세를 좀 하고 싶다구 해서,
 “돈 있으면 양반이지 별 게 있느냐!”
 하고 일부러 아랫배를 툭 내밀고 걸음도 뒤틀리게 걷고 하는 이 판이다. 이까진 나뭇뿌리다 남의 땅을 가지고 머처럼 닦아 놓았든 가문을 망친다든지 할 어른이 아니다. 또, 나로 논지면 아무쪼록 잘 배서 점순이에게 얼른 장가를 들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자면 결국 어젯밤 @몽태네 집에 마술간 것이 썩 나뻐다. 낮에 구장님 앞에서 장인님과 내가 싸운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대구 빈정거리는 것이 아닌가. (중략)

“남의 일이라두 분하다, 이 자식아. 우물에 가 빠져 죽어.”

나중에는 겨우 손톱으로 목을 따라구까지 하고, 제 아들같이 함부루 흑닥이었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해서 그대로 옹길 수는 없으나 그 줄거리는 이렇다…….

우리 장인님이 딸이 셋이 있는데 맏딸은 재작년 가을에 시집을 갔다. 정말은 시집을 간 것이 아니라 그 딸도 데릴사위를 해 가지고 있다가 내보냈다. (중략) 점순이는 둘째 딸인데, 내가 일테면 그 세 번째 데릴사위로 들어온 셈이다. 내 담으로 네 번째 놈이 들어올 것을 내가 일두 참 잘하구, 그리고 사람이 좀 어수룩하니까 장인님이 잔뜩 붙들고 놓질 않는다. 셋째 딸이 인제 여섯 살, 적어두 열 살은 돼야 데릴사위를 할 테므로 그동안은 죽도록 부려 먹어야 된다. 그러니 인제는 속 좀 채리고 장가를 들어 달랠 구떼를 쓰고 나자빠져라 이것이다.

나는 건으로 ‘엉, 엉.’ 하며 킁등으로 들었다. 몽태는 땅을 얻어 부치다가 떨어진 뒤로는 장인님만 보면 공연히 못 먹어서 으름거리다. 그것두 장인님이 저 달랠 구 할 적에 제 집에서 위한다는 그 감투(예전에 원님이 쓰든 것이거나, 옆구리에 뽕뽕 줌먹은 걸

레)를 선뜻 주었드면 그럴 리도 없었든걸…….

그러나 나는 몽태란 놈의 말을 전수히 곧이듣지 않았다. 꼭 곧이들었다면 간밤에 와서 장인님과 싸웠지 무사히 있었을 리가 없지 않은가. 그러면 딸에게까지 인심을 잃은 장인님이 혼자 나뻐다.

실토이지 나는 점순이가 아침상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는 오늘은 또 얼마나 밥을 담았나 하고 이것만 생각했다. 상에는 된장찌개하고 간장 한 종지, 조밥한 그릇, 그리고 밥보다 더 수부룩하게 담은 산나물이 한 대접, 이렇다. 나물은 점순이가 톰툰이 해 오니까 두 대접이고 네 대접이고 멋대루 먹어도 좋나, 밥은 장인님이 한 사발 외엔 더 주지 말라고 해서 안 된다. 그런데 점순이가 그 상을 내 앞에 내려놓며 제 말로 지껄이는 소리가

“구장님한테 갔다 그냥 온담 그래!”
 하고 옛그제 산에서와 같이 되우 쫓알거린다. 따은 내가 더 단단히 덤비지 않고 만 것이 좀 어리석었다, 속으로 그랬다. 나도 저쪽 벽을 향하여 외면하면서 내 말로
 “안 된다는 걸 그럼 어쩔건담!”
 하니까,
 “침을 잡아채지 그냥 뒤, 이 바보야!”

하고 또 얼굴이 빨개지면서 성을 내며 안으로 쉼죽하니 튀들어가지 않느냐. 이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게 망정이지, 보았다면 내 얼굴이 예미 잃은 황새 새끼처럼 가여웁다 했을 것이다.

9.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나’는 몽태와 장인이 원래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몽태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고 있다.
- ② ‘나’는 몽태의 말을 듣고도 장인에게 잘 보여서 점순이와 성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③ 장인은 ‘나’에게 일을 많이 시키면서도 ‘나’가 먹는 밥을 아까워할 정도로 인색한 인물이다.
- ④ 장인에게는 딸이 셋이 있고 데릴사위를 들여 농사에 필요한 노동력을 쓰고 있는 것은 둘째 딸이 처음이다.
- ⑤ ‘나’는 아버지의 수염이라도 잡아당기라는 점순이의 말에 당황하고 있다.

10. 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과 인물의 갈등을 부추겨 절정으로 치닫게 한다.
- ② 주인공이 보지 못하는 사건의 전모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 ③ 주인공의 조력자로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 ④ 새로운 사건을 일으키는 인물이다.
- ⑤ 주인공과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악당형 인물이다.

목민배포음지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②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므로 작품 속 인물인 '나'가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한 자신의 심리를 서술한다.

- ①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므로 서술자가 작품 밖에 위치하지 않고 작품 안에 위치한다.
- ③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므로 사건에 대한 '나'의 심리만 자세히 드러낼 수 있다.
- ④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장면은 절정인데, 이 글은 전체 소설에서 발단 부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이 글은 사건 진행의 흐름이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역순행적 구성이 나타나므로 적절하지 않다.

2. [정답] ⑤

이 글에서 '나이가 찼으니 성례를 시켜 줘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으므로 성례를 시켜달라고 대놓고 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① '나'는 점순이의 키가 자랄 수 있도록 물을 대신 길어 주고 소낭당에 돌을 올려놓고 치성도 여러 번 드렸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 ② 장인의 배를 불리기 위하여 모를 심고 싶지 않다고 하며 모를 붓다 말고 배가 아프다고 눈독을 기어 올랐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 ③ 이 글에서 '나는 애초 계약이 잘못된 걸 알았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 ④ 점순이의 키가 자랄 수 있도록 물을 대신 길어 주고, 치성도 드린 걸 보면 키가 자라지 않아 성례를 못 한다는 장인의 말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정답] ⑤

㉞는 비속어를 사용하여 점순이의 키가 자라지 않는 데에 대한 '나'의 답답함과 속상함을 표현한 말이다. 따라서 ⑤가 정답이고, 나머지 ①, ②, ③, ④는 모두 적절하지 않다.

4. [정답] ②

㉠에서 '숙맥이 그걸 모르고'라는 부분에 점순이의 키가 크기만을 기다리던 자신이 어리숙했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① ㉡은 '나'가 기대하는 장인의 말이지만 장인이 결코 하지 않는 말이라, 장인은 '나'를 계속 부려 먹기 위해 혼인을 일부러 미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은 개, 돼지와 점순이를 비교하여 나의 아쉬움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④ ㉣에서 '나'는 '장인님이 밭다듬가 해서가 아니다.'라고 하여 장인에게 평소에 불만이 없음을 알 수 있다.
- ⑤ ㉤에서 '나'는 장인의 불룩 나온 배가 많이 먹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인은 내병이 있다고 핑계를 대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5. [정답] ①

장인의 못되고 욕심 많은 성격과 특징을 서술자인 '나'가 직접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장인이 '나'에게도 폭력을 휘두르며 '이 자식 저 자식'이라고 욕을 한다고 했으므로 나에게 특별히 인정 있게 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나'가 장인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위와 장인 관계에서 당연한 호칭이므로 평소 '나'가 장인을 존경해 왔음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
- ④ 장인이 마름으로서 마을 사람들에게 못되게 군 행동을 '나'가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으므로 보여주 기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 ⑤ 파멸에 이르게 될 거라는 암시는 드러나지 않는다.

6. [정답] ③

[B]는 봄이 되어 괜히 '나'의 마음이 들뜨고 춘정이 일어나는 상황이므로 ③이 적절하다.

나머지 ①, ②, ④, ⑤는 모두 [B]의 '나'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7. [정답] ③

이 소설의 배경은 일제강점기의 농촌으로 당시 장인처럼 마을 사람들에게 못살게 구는 마름은 많았

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① 동네 어린아이들까지 이름에서 따온 별명인 ‘육필이’라고 부른다는 것에서 아이들에게까지 두루 인심을 잃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점순이가 키가 안 자라서 성례를 못 시켜 준다고 핑계를 대며 ‘나’를 부러 먹고 때리기까지 하는 걸 보면 못된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물건을 빼앗고, 뇌물을 주지 않으면 다음 해에 땅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걸 보면 비리를 많이 저질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그에게 육을 안 먹는 사람은 명이 짜르다 한다.’고 할 정도로 동네 사람들 모두를 욕하고 다녔음을 알 수 있다.

8. **정답** ①

㉠은 구두쇠인 장인이 사경을 주는 대신 점순이와 성례를 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가 한 말이다. ‘나’가 ‘그러면 얼썬 성례 해 줘야 (사경을 달라는 말을) 안 하지유.’라고 한 것으로 보아, ‘나’의 심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이다.

나머지 ②, ③, ④, ⑤는 모두 ㉠에 드러나는 ‘나’의 심리로 적절하지 않다.

9. **정답** ④

장인에게는 딸이 셋이 있는데 맏딸은 재작년에 시집을 갔고, 그 딸도 데릴사위를 해 가지고 있다가 내보냈다고 했으므로 둘째 딸인 점순이로 처음 데릴사위를 들인 것이 아니다.

- ① ‘나는 건으로 ‘엥, 엥.’ 하며 깃등으로 들었다. 몽태는 땅을 얻어 부치다가 떨어진 뒤로는 장인님만 보면 공연히 못 먹어서 으름거린다.’는 부분에 잘 드러난다.
- ② ‘아무썽록 잘 배서 점순이에게 얼른 장가를 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부분에서 알 수 있다.
- ③ ‘밥은 장인님이 한 사발 외엔 더 주지 말라고 해서 안 된다.’에서 알 수 있다.
- ⑤ 수염이라도 잡아채라는 점순이의 말을 듣고 ‘내 얼굴이 예미 잃은 황새 새끼처럼 가여웁다 했을 것이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10. **정답** ②

이 글에서 ㉠몽태는 장인의 속셈을 간파하고 ‘나’에

게 속 좁 차리라며 충고를 하고 있지만 ‘나’는 몽태의 말을 믿지 않아 독자를 답답하게 하고 있으므로 ‘나’는 보지 못하는 사건의 전모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① ‘나’가 몽태의 말을 믿지 않아 갈등을 부추기지 못했다.
- ③ 이 글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 몽태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 ④ 몽태는 새로운 사건을 일으키지 않는다.
- ⑤ 몽태는 주인공인 ‘나’에게 장인에 대해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인물이므로 대립적 관계도 아니고 악당형 인물도 아니다.